

MVP 2015. SPRING(NO.42)

# 벤처선교

선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미전도종족 선교, 멈출 수 없는 이유

멘디(Mehendi)를 통한 복음전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제자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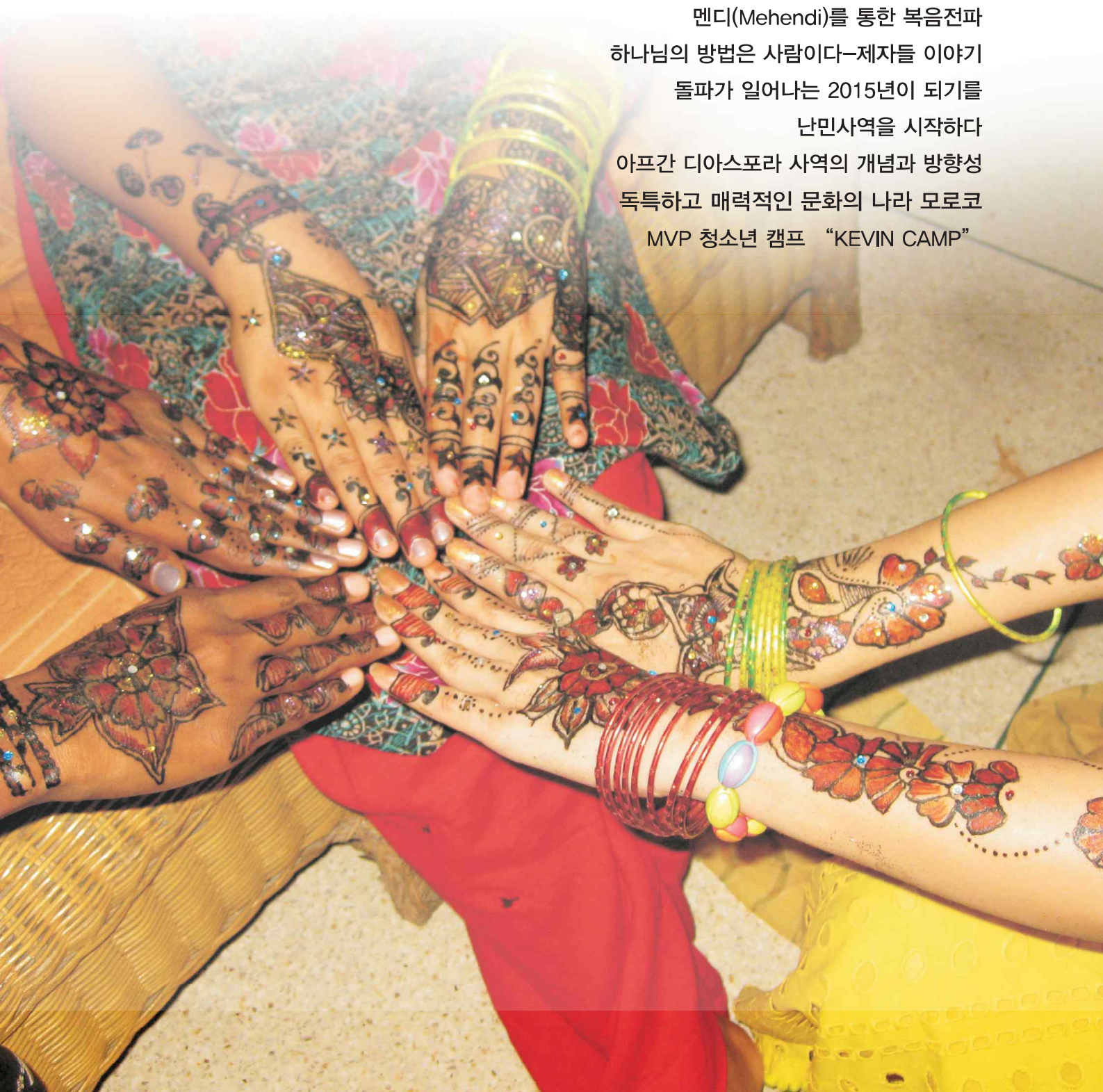
돌파가 일어나는 2015년이 되기를

난민사역을 시작하다

아프간 디아스포라 사역의 개념과 방향성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의 나라 모로코

MVP 청소년 캠프 "KEVIN CAMP"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6:29)



이사장 신동우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정우길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협동이사 김동해 김만형 박삼열 이수진 이지호

본부장 한수아 | 행정 총무 이갈렙 | 훈련 동원 총무 전상일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부원장 김승관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윤 정 | 협력연구원 강원국 김소윤 오요셉 이영배 전해솔

본부간사 권선주 김민숙 문현심 전해솔 조대상

협력간사 김아영 손인중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한수아 | 편집·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5년 4월 1일 | 발행부수 1500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 Contents

여는글	04 선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한수아
	—
헤드라인	05 미전도종족 선교, 멈출 수 없는 이유   윤 정
	—
현장	08 멘디(Mehendi)를 통한 복음전파   김소니아
	10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제자들 이야기   샤론박
	12 돌파가 일어나는 2015년이 되기를   아쿨라
	15 난민사역을 시작하다   김홍빈
	18 아프간 디아스포라 사역의 개념과 방향성   김소윤
	20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의 나라 모로코   이이슬
	—
케빈캠프	22 첫번째 케빈캠프를 마치며   전상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자원
	2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김의수
	—
VTT	24 반응형 그리스도인   조현준
	25 기쁜마음으로 완주할 길   차윤주
	VTT 10기를 마치며   김단비
	—
새소식	26 MVP선교회의 새소식입니다



# 선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한수아 선교사 / 본부장

지난 1월 소속 선교사들을 격려하고자 인도차이나 몇 개국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 번 선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선교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과업이다(롬1:5). 따라서 선교활동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민족)들을 향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인구 비율이 20-25%에 불과한 한국이 기독교인구 80%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에 선교사를 보낸다면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를 부자나라(교회)가 가난한 나라(교회)에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비록 기독교인구의 비율이 높더라도 신앙수준이 높지 않고 이단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신앙수준이 높고 이단의 활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큰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신앙서적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서 다른 민족의 교회보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선교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도차이나 지역은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교활동에 많은 자유가 있는 곳이다. 한국과 가깝고 비자도 수월하고 생활비도 저렴해서 한국선교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한국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선교사 세계10대 파송국에 인도차이나 지역 국가가 4개국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도차이나에서 많은 한국선교사들은 이미 복음화된 민족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에는 복음화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민족들도 많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아직 복음화율이 낮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은 주류민족이 거의 복음화되지 않았고 주류민족선교에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기독교화된) 소수민족에 대한 선교는 상당한 자유가 있다. 그러다보니 이미 복음화되었거나 사역이 수월한 소수민족에게만 대부분의 선교사가 사역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작 미전도종족인 주류민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미 전도된 사람들에게 선교가 집중되면 복음화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의 의존성이 커지고 더 나아가 현지 기독교인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최신의 복잡한 선교전략을 논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전략,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민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전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선교는 자기 선교육구의 만족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MVP





# 미전도종족 선교, 멈출 수 없는 이유

윤정 / 리사원 협력연구원(인도차이나반도 권역)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필자는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훈련생으로 또 간사로 섬기면서 지낸 적이 있다. 한 학기에 보통 17개에서 많게는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간사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면 기록 7장 9-10절 말씀이 형상화된 듯하다. 각각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드리게 될 예배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해서 감격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저서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선교는 예배!”라고 했는데, 미전도종족 선교의 마지막 모습이야말로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s)이란 자신의 종족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인 신앙공동체(교회)가 없는 종족으로, 누군가 언어와 문화 등의 장벽을 넘어 이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종족을 말한다. 미전도종족 선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선교의 초점을 두며, 선교를 지리적인 관점(국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족(타문화) 관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미전도종족 선교는 선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대상에 선교의 초점을 둔다.

이러한 종족 개념의 선교는 현대선교의 세 번째 시대(1934현재)에 카메론 타운젠드(William Cameron Townsend)와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에 의해서 강조되면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랄프 윈터(Ralph D. Winter)를 통해 그 개념이 발전되고 전략화 되었다.

한국에서의 미전도종족 선교는 1993년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 Adopt-A-People)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 '95 세계선교대회'(GCOWE: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2,000개의 미전도종족을 2000년까지 입양할 것을 공동 결의하였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총 180개의 미전도종족만이 국내 교회와 단체에 입양되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미전도종족 선교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중복투자에 있다. 2002년 랄프 윈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전도종족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2.4%에 불과했다. 또한 선교 연구가인 데이빗 바렛(David Barrett)은 미복음화지역에 있는 11억의 사람들을 위해 재정의 1.2%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선교가 이미 복음을 들어본 지역이나 종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선교사나 재정후원 등 선교자원이 이미 전도된 지역이나 종족들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선교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중복투자의 문제는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미얀마 선교 상황을 살펴보자. 미얀마의 기독교 전래는 로마 가톨릭은 16세기, 개신교는 1813년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에 의해서이다. 미얀마에는 공식적으로 135개 종족이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200개 이상의 종족들이 각각 다른 언어, 종교, 문화를 배경으로 살고 있다. 2014년 현재 미얀마 인구는 51,419,420명이며, 그 중 개신교 인구는 약 6%이다. 그러나 이 6%의 개신교 인구가 미얀마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소수종족인 친족(Chin, 90%), 카친족(Kachin, 70%), 카렌족(Karen, 40%)에게 집중되어있다. 반면에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 종족인 버마족의 복음화율은 0.2-0.3% 미만이며, 이외 거대 종족인 산족, 라카인족의 복음화율도 버마족과 유사하다. 이러한 복음의 편중현상은 200년 미얀마 선교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불교도인 버마족이나 몬족보다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정령을 숭배하는 종족들(카렌, 친, 카친) 위주로 사역한 결과이다.



한국 교회의 미얀마 선교는 공식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 4월 현재 총 151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은 다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 기독교 소수종족 사역, 비기독교 소수종족 사역, 그리고 버마족 중심 사역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중에서 기존 기독교 종족 중심으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기독교 소수종족 사역, 그리고 주종족인 버마족 순이다. 특히 버마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는 전체 151명 중에 13-16명 정도로 약 8-10%정도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선교도 정작 복음이 필요한 버마족 등 미전도종족보다는 기존의 기독교 종족들에게 사역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한 시니어 선교사의 이야기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 중에는 친족이 가장 많은데, 친족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한국의 신학교에 있는 대부분이 친족이다 보니 “한국은 친족이 잡았다.”는 말까지 거론될 정도이다... 지금까지 만나본 현지인 사역자들 가운데 10명 중 8-9명이 친족이었다. 그러나 친족들은 재정이나 다른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스크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족의 예에서 보듯이 미얀마의 한인 선교는 복음화율이 0.2-0.3% 미만인 거대 미전도종족들 보다는 40-90% 이상이 이미 기독교인들인 종족들에게 여전히 가장 많은 사역자 및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복음의 불균형 현상은 결국 선교지 또는 선교 대상의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역의 빠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집중하다보니 선교의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20)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마 28:19)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한국선교는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과 종족들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집중해야한다. 즉, ‘모든 민족’, ‘모든 종족(ethnos)’을 제자 삼는 미전도종족 선교에 더욱 집중해야한다.



미얀마의 한인 선교에서 희망적인 것은 소수지만 버마족을 비롯하여 미전도종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0년까지 국내 10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미얀마 5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모든 종족(ethnos)’을 제자 삼는 미전도종족 선교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미얀마의 모든 미전도종족들, 전 세계 모든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미전도종족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MVP





# 멘디(Mehendi)를 통한 복음전파

김소니아 선교사 / P국

멘디는 축제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파키스탄 여성들이 손등이나 팔에 헤나로 문양을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일명 헤나 문신이다. 발루치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2011년 라호르에 있는 선교사 언어학교에 가게 되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여서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일반 멘디를 성경이야기에 접목시켜 성경멘디를 만든 서양 선교사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성경 멘디는 성경의 핵심내용을 27개의 그림으로 나타내 특별히 만든 것이었다. 메이크업에 종사했던 나는 성경멘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그림책자를 받았다. 언어학교에 있는 동안 복음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는 기도를했다. 그러던 중 원래 계획했던 메이크업 스쿨이 아닌 멘디 스쿨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현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멘디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던 중 0\*현 지인 단기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멘디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멘디를 그리며 설명해 주었다.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생 들을 대상으로 구술시험도 실시했다. 훈련생들은 성경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 이야기에 맞는 멘디를 그리니 너무 재미있다고 했다. 멘디 그리기가 익숙해지자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더 예쁘게 꾸미는 응용력까지 생겼다. 성경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가운데 문양은 그대로 그리도록 하고 나머지 꾸미는 부분은 자신만의 예쁜 모양으로 창작하여 그리도록 했다. 이렇게 그려진 멘디는 일반멘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었다. 하지만 멘디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400원 정도의 저렴한 헤나 하나만으로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없어 고민을 했다. 궁리 끝에 좀 더 좋은 헤나를 써서 색깔의 대비를 명확히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작은 액세서리도 사용해서 더 예쁘게 만들었다.

멘디 수업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영어로 된 책자를 우르드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을 현지 목사님과 함께 2개월에 걸친 수고 끝에 마쳤다. 멘디 사역을 하는 중에 우르드어로 출판된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자는 비신자들에게 멘디를 그려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거나 질문할 때 선물로 주었다.

멘디를 알게 된 후 사람들과 만나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찾았다. 혼자 기차를 타거나 길거리에 앉아 쉬고 있으면 내 손등에 그려진 멘디를 보고 현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들은 일반 멘디와 다른 내 손등의 그림을 보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물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편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니 질문도 더 받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게다가 나를 만난 사람들은 외국인이 처음 보는 특별한 멘디를 해주었다며 가족, 친구 등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왔고 성경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다.

나는 멘디사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어느새 훈련생은 20명까지 늘어났다. 기도하는 중에 팀으로 성경멘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집중적으로 성경통독을 하고 첫 번째 아웃리치를 나갔다. 멘디를 그리는 사람,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 준비물과 선물을 챙기는 보조를 포함한 3인 1조의 팀을 구성했다. 소규모로 팀을 짰 것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였다. 잔뜩 긴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소책자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멘디를 받던 여동생 손을 낚아채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들은 선물로 준 팔찌는 버리고 소책자는 가져갔다. 우리는 놀라고 당황해서 바로 장소를 옮겼다.

두 번째 아웃리치를 나갈 때는 팀을 보호하고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 남자 훈련생들을 뒤쪽에 배치했다. 라마단이 끝나고 열리는 이드 알 피트르 축제 때 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100명 정도에게 멘디를 그려주며 성경을 나누었다. 한 사람에게 자세한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멘디를 받는 사람에게 선물과 소책자를 주었다. 멘디를 받지 않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물러들어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가 그리는 것을 보고 질문하며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때 만난 몇 명과는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사는 아랫집 가정부의 딸이 내 멘디를 보고 그려줄 것을 요청했다. 평소처럼 멘디를 그려주며 예수님 얘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즉시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소책자 외에 더 많은 책을 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이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멘디를 한 현지인 단기팀은 이전에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파키스탄은 강성 무슬림 지역이고 선교사들도 늘 신중히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멘디를 하며 강성 무슬림이라도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은 다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멘디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신자로서의 강한 정체성과 담대함이 생겼다고 했다. 우리는 멘디를 했지만 그것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을 뿐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예수님이 나왔고 멘디를 접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 명확히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미리부터 내가 만날 사람과 방법, 훈련생, 도구, 장소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한 일은 매 순간 반응하며 순종한 것 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멘디를 하게하기 위해 내게 방법을 알려주셨다. 만날 사람들, 책자, 번역, 장소와 모든 상황을 예비하신 것을 보면서 완벽하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안식년이 끝났다. 내게 주신 발루치족이 있는 카라치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 왜 발루치족을 바로 만나게 하지 않고 2년간 멘디를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다. 복음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하나된 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다음 발걸음도 기대하며 나아간다. MVP





#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 - 제자들 이야기

샤론박 선교사 / Z국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여 2004년 선교지로 나갔다.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타문화권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타문화권 사역과 삶은 날마다 나를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기도 했지만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기도 했다. 비자문제 또한 심심찮게 우릴 고민하게 만들었다. 조국을 떠난 타국에서의 삶을 통해 본향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졌고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밖에 없었다.

주님은 나에게 '제자 세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주셨다. 처음에는 통역을 세워 사역하였지만 점차 통역 없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참으로 많은 현지인 형제와 자매 사역자를 만났고 그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있다. 손주를 둔 50대의 사역자들,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이 많은 형제자매들, 가난하지만 순박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따랐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고 자랑스런 주님의 사역자들이다.

언젠가 겨울에 남쪽 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준비해간 1인용 전기장판을 깔고, 침낭을 입고, 외투로 얼굴까지 덮고 며칠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환대하며 매끼 맛있는 식사로 섬기면서 배움에 임했던 그들로 인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아직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기쁘고 행복하다. 그 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 목사나 장로로 안수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전보다 더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을 것이다.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역자로 세워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나그네로서의 설움과 어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나의 기대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30대 초반의 '민신(閔新)'이라는 자매는 예쁘고 똑똑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성격도 활달하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속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녀를 훈련학교에 데리고 왔다. 그 자매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수기도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거부해서 그냥 기도만 해줬다. 이혼의 아픔과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자매였다. 다음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 지도자의 추천과 본인의 자원함도 있어서 훈련학생이 되었다. 처음의 경계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웃음도 되찾았다. 예배와 매일 묵상기록, 성경읽기, 기도생활 등 여러 숙제들을 성실하게 했고, 나눔과 토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말이지 타의 모범이 되었다. 나도 내심 기뻐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고 인격적인 성숙도 없었다.

나는 나의 방식과 정해 놓은 과정으로 훈련시키면 학생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훈련자로서의 자신을 너무 신뢰했는지도 모른다. 변화시킬 수 있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훈련생들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본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지 못했다. 종종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도 격려와 세움이 아니라 판단과 비방과 다툼을 일삼아 교회 사역자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

한번은 나에게도 다른 지체들에게 하듯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말들을 했다. 그 동안은 이 자매의 상황을 알기에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권면하였는데, 그 날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질책하며 호통을 쳤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자매가 원하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없으니 자매 마음에 좋아하는 선생을 찾아가라고 했다. 더 이상 훈련학교에 올 필요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세웠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학생을 거부하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주님 앞에 앉아 기도했다. “주님, 내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인내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더 이상은 이 자매를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사랑도 없네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훈련학교에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민신 자매가 어김없이 왔다. 그 날 이 자매를 보며 부족함 많은 나를 용납하시고 거둬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공훈의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인데, 이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자. 다시 한번 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셨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내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자. 골 1:28-29, 고전 15:57-58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길 소망한다.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지체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움과 설레임을 안고 간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얼마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을까! 기대되고, 또 다시 그들과 연합하여 더 많은 영혼을 돌보며 제자로 세우는 사역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가슴 벅차고, 기쁘고, 행복하다. MVP



# 돌파가 일어나는 2015년이 되기를

아글라 /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우리 MVP선교회는 국내 단체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비즈니스 선교를 주요 사역의 하나로 받아들였고, 3M 선교사를 파송하고 동역하여 미전도종족 가운데 교회개척 운동을 하는 것을 선교전략으로 표방해 오고 있다. 우리 단체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벤처회사의 붐이 있기도 했고, 또 선교회 이름에 벤처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향,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03년 선교사 총회를 마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자는 결의에 따라 그 해 12월 가칭 '벤처사역연구원(벤사연)'을 만들게 되었다. 벤사연이 출범을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가진 분들이 모여 들었고, 함께 예배하며 어떻게 좀 더 실제적인 사역을 할 지 논의하다 보니 연구원이란 이름으로 가면 그냥 연구만 하는 단체가 될 우려가 있으니 연구와 함께 실제적인 사역도 개발하고 비즈니스도 하도록 이름을 벤처선교사역개발원(벤사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2005년 벤사원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 온 지난 10여 년간의 벤사원 사역을 돌아보게 된 계기는 지난 해 선교사 총회와 11월에 열린 열방콘서트(열콘)였다. 총회의 주제인 '3M과 함께하는 교회개척운동'을 준비하면서 벤사원의 사역이 정말 교회개척운동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 벤사원이 주관한 열콘에서 발표할 자료와 기도제목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열방콘서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올 1월에 열린 벤사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 1. 벤사원의 목적과 전략 보완

“모라비안의 모델을 따라 선교 현지에서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 현지인과 현지교회를 섬긴다”

(1) ‘모라비안의 모델을 따라 선교 현지에서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선교와 비즈니스를 차별하지 않는 BAM(Business as Mission)의 신학을 추구한다. 선교역사를 연구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례이자 본은 모라비안 선교회인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사역보다 60년을 앞서서 이미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다. 윌리엄 캐리는 “내 직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는 다양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에게 직업은 당시 선교사로서는 입국할 수 없던 인도에 진출하고 생계를 위한 수단(Business for Mission)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로 삼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는 모라비안 선교회와 그들이 했던 실제적인 사역을 연구하여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하기 위해 몇 가정이 선교지로 이주한 후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당시로서는 부가가치가 높았던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비즈니스를 했다. 그 사업으로 이익을 낸 후 자신들의 필요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헌금하여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였으며,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만연했던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여 비즈니스 문화 가운데 변혁을 일으켰다. 그들은 또한 24시간 연쇄 중보 기도를 100년 이상 지속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와 중보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분을 보여 주었다.

(2) ‘이를 통해 현지인과 현지교회를 섬긴다’

선교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선교사들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이나 사역환경이 도저히 이익을 내기 힘들고 입국도 어려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단으로서의 사업이라는 개념도 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초점이 선교사나 우리 단체에 맞춰질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면서 현지인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을 주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돈으로 유혹하여 현지 교회의 지도자가 양육한 사람을 빼오고 자신이 중심이 된 사역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한국 선교사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너무나 뼈 아웠다. 우리의 1차적인 목표를 현지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건강하게 세우면서 그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진정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현지인과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 2.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구분 운영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벤사원 차원에서 사업을 두 가지의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다. 즉 벤사원이 개입하여 진행하는 ‘직접 프로젝트’와 벤사원의 관여 없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선교사가 운영하는 ‘관련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직접 프로젝트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검토,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운영에 일부 관여하되 정해진 원칙 외에는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관련 프로젝트란 선교사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를 지칭한다. 이들에게는 벤사원이 개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떤 프로젝트인지 상관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필요가 생겨 벤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R&D, 컨설팅,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돕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 3.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함

실제적인 비즈니스를 논의하다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3M전략과 팀사역을 통해 교회를 개척한다는 원론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또한 벤사원이 현장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본부 위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낀다. 차츰 다 정리해 가야 하겠지만 꼭 밝히고 싶은 점이 있다. 그것은 벤사원의 설립목적이 교회개척운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돕고 섬기기 위한 것이지 주관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벤사원은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 몸의 필요를 섬기는 자세로 일할 것이다.

2015년은 이제까지 준비해 온 비즈니스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어 선교 현지에 회사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현재 2~3가지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당장에 이익을 내는 사업이 되기 어렵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라비안의 모델을 따라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익을 내고 그것으로 현지인을 고용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현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현지인들이 자립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싶다. 유대 본토로 귀환하게 된 자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MVP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시126:1)



# 난민사역을 시작하다

김홍빈 / 캠퍼스사역개발원 원장, 글로벌비전교회 담임목사

하나님은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리더와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선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120여 년간 끊임 없이 지속된 중보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다.

지난 1월, 우리팀은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을 터키에서 만나 그들과 교제하며 사역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을 만나기 전 '하나님은 왜 이란에 부흥을 주셨는가, 왜 부흥 중에 있는 이란 교인들은 박해를 받는가, 왜 이란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이 되었는가?' 등의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담대한 믿음, 교회개척의 열정, 순교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땅 끝까지 이르러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을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나누고자 한다.

## 사례1

앙카라에서 80킬로 가량 떨어진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네 번의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정 상황도, 민족도 각기 달랐지만 삶과 신앙에 '고난'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 중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한 형제 간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40대 초반의 형제로 6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곧바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지 불과 2년 만에 그가 살던 지역민의 50%(약 1,000여명)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지만 회심했다고 위장한 채 공동체에 들어온 한 사람이 복음전도팀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나왔다. 그는 서둘러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 마을의 기독교인들도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다. 그는 육로로 이란으로 넘어가던 중 경찰에게 발각되어 신분 조사를 받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은 세례 증명서가 짐에서 나와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감옥을 나온 후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이란 교회에 나갔지만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프간인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보완상의 문제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받아주는 진정한 교회를 찾아 사우디아라비아로 먼저 갔고 나중에 인도에도 갔었다. 감사하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과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글을 몰랐다. 성경 각 권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도 몰라 성경도 못 찾는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그는 우리더러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글로벌비전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으로 주셨던 마태복음 16장 18-19절 말씀을 선포하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선포했다. 천국열쇠를 가진 교회를 선포하였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교회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살해 협박도 받는다. 몇 개월 내지 몇 년 간 실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우리가 살길 이라고 분명하게 전했다. 나는 “당신이 이 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간인 교회를 세우라”고 도전했다. “당신은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사용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형제를 주축으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주 한 가정씩 주게 돌아오는 기쁨도 있기도 하고, 목양을 하면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 사례 2

앙카라에 있는 유엔 난민신청 사무소 앞에서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아프간 난민들에게 성경 배포 사역을 하였다. 한국에서 가져간 1,000원 짜리 양말을 곱게 포장해서 나눠주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인질'(성경)을 주었다.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과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 배포하였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기도했다. 20여권의 성경을 나눠주었는데, 이라크 난민들이 유난히 많았다. 터키에 가기 전에는, 남루한 차림으로 텐트에서 생활하며 늘상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난민들을 떠올렸다.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서 오히려 더 놀랐다. 난민인 그들이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우리의 행색을 보면서 우리를 걱정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차도 대접해주었다. 그들과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눠도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이 다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이라크 청년은 자신은 날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에게 복음을 깊이 전하지는 못했지만 선물과 함께 성경을 주었다. 잘 받는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의 친구들이 몰려왔다. 그곳에서 버스 한 대에 가족 전체가 타고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식이 11명이나 되는 이라크인도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

한국에서는 노방전도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당연히 결과가 거의 없다. 그런데 터키의 난민신청 사무소에서 기다리는 난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는 이들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 추수할 때가 된 들판이다.

## 사례 3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 터키 시골 마을로 온 이란 난민들을 만났다. 한 명의 이란인 아주머니만 잠깐 만나고 지나가려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계획과 달랐다. 다른 도시엔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 모이기가 어려워 예배도 드리기 어려웠다. 다음 일정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40일 점심 금식하는 23살 사미르 형제, 21일간 기도하며 만난 부부, 꿈에서 예수를 만난 사민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나도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아멘을 외쳤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전했다. 더 큰 아멘 소리가 나온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교제하였다. 그들 뿐 아니라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들이 재정리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 사례 4

13년 동안 이슬람 목회자인 이맘으로 살았던 형제를 만났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을 길거리에서 들었다.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를 잠깐 만났음에도, 그 형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와 복음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 선교 사님은 이런 형제를 “무슬림권의 최종병기”라고 하



였다. 이런 이맘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보니 너무 신기하였다.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부어 주시길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 사례 5

다른 이란인 청년들을 만났다. 부부와 형제 총 3명이 한 달 전에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왔다고 했다. 이들이 초신자이고 두번째 방문이라 해서 기초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서 잠시 교제하고 간증을 들어보니 '초신자가 신앙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신자의 삶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은 초신자와 비슷했지만 이들의 태도와 삶은 초신자가 아닌 것 같았다. 간증을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는가?"라는 물음이 내 안에서 떠올랐다.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설교 본문을 변경하게 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을 전했다. 이 말씀은 교회개척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다. 초신자들에게 박해에 대하여, 흠여지는 교회에 대하여 전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들도 사실 많이 두렵다. 영적으로 볼 때 놀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들에겐 이제 이 땅에서 돌아갈 나라가 없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앞만 봐야 한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나그네인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가지고 나온 전 재산으로는 3개월 만 버틸 수 있다. 취업은 안 된다. 걱정이 된다. 이란에서는 고급 기술자였는데, 터키에서는 난민이다. 아마 언젠간 터키도 떠날 것이다. 터키에 있는 난민들은 공식적으로 160만, 비공식적으로 300만 명 가량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위로와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주고 계신다. 설교를 하고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능력이 임하여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매가 흐느낀다. 멍멍해지고, 겸허해 지는 순간이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한국처럼 강력한 예배와 설교는 없었지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들을 깊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느끼게 되었다.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나고 기도로 승리한다. 고난은 부흥의 시작이다. 프로그램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본질이다. 성령의 역사는 가난과 깨어짐과 간절함이 있

는 사람과 그 사람이 예배하는 그 도시에 임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때 '돌파'가 일어난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고 성장하고 부흥되어 흠여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 여름에 다시 가기로 하였다. 우리가 방문한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매달 1회 난민은 아니지만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아랍계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터키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왜 못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게 될 것이다. MVP



# 아프간 디아스포라 사역의 개념과 방향성

김소윤 / 리서원 협력연구원(페르시아 2권역)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간 정부는 NGO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 NGO들과 선교사들이 대거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다.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과 단체들도 그때부터 아프간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8월 한인 피랍사건이 발생하면서 극소수의 비즈니스 선교사를 제외한 모든 선교사는 아프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 때 이후 한국인은 사역자 신분으로는 아프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입국 금지된 나라에 대해서 대개 관심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선교사들이 아프간에 들어갈 수 없는 지금, 한때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

탈레반의 테러와 종족간 갈등으로 많은 아프간인들이 나라를 떠났다. 이들은 타지키스탄, 터키, 이란 등 주변나라들과 중동 지역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 극단적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97~2000년도에는 타지키스탄으로 대거 이동하였으며 2001년 아프간 전쟁 때 악화되어 탈레반이 활발히 활동한 2006-2007년에는 극에 달했다.

아프간은 시리아 다음으로 많은 난민을 받

생시켰는데 그 수는 지난 30년간 300만 명에 달한다. 1979년 옛 소련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난민이 발생했으며 1991년부터 계속된 내전으로 한때는 600만 명이 나라를 떠나기도 했다. 주변국인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터키 등에 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탈레반이 잠잠해지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런데 타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복음에 좀 더 수용적이 되어 신자가 된 경우가 빈번이 생기고 있다. 터키나 타지키스탄은 비즈니스나 종교활동이 아프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타 종교를 가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이들을 섬길 선교사와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난민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반복되는 생계의 걱정을 안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프간인 신자들에게 닥친 또 다른 어려움이다.

300만 명에 가까운 아프간 사람들이 있는 터키,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각 나라에서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간에 깊은 소통이 일어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한 신자로 성장하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일도 필요하다. 난민들은 상황이 좋아져 남겨진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난민으로서 그나마 대우가 좋은 나라를 찾아 다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동까지 생각하고 다양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프간 디아스포라 사역이다.



현재 O\*을 비롯한 외국단체들이 디아스포라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까지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사는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를 선호한다. 그렇지만 아프간인들처럼 특정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의 순교 후 신자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지금은 전쟁과 테러를 피해 아프간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밖에 있는 교회가 이들을 맞이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최종목적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선교사로 역과송하여 복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지금도 테러, 내전 등 여러 이유로 아프간,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악화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이주민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 아프간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선교를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

## 타지에서 고아가 케어받은 사례

고아에서 심리상담가로..

사요라는 21세의 여성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요라가 네살 때 타지키스탄 내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내전이 끝날 즈음 그녀의 아버지는 반군으로 오해 받아 총살당했다. 내전이 끝난 후 타지키스탄 내 고아들의 숫자가 2,000여명에 달했다.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쳤다. 그 때 사요라는 굿\* 사무장인 로\*를 만나 그 기관에서 세운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다. 사요라를 비롯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그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났다. 그녀는 거기서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고아원에서 질 높은 교육과 양질의 음식을 제공했다. 또 체육관 등의 시설도 훌륭했다. 사요라는 고아원에서 영어를 배웠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고아원을 나와야 했다. 이후 이모 집에 적을 두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삶이 우울했다. 이 때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 그 시기에 고아원에서 들었던 예수님이 떠올라 하나님께 정말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사는 것이 어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다. 그 때 사요라는 예수님을 만났다. 사요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사요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무슬림 국가인 타지키스탄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선택을 받아 결혼하지만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받는다. 결혼생활 중에도 여자는 마땅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혼을 당한 후에도 다른 남자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재혼하지만 똑같은 결혼생활이 반복된다. 성경에서 말한 가정의 모습을 알고 난 후 사요라는 타지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요라의 꿈은 여성심리상담가이다. 현재는 영어실력을 더 쌓으며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 그녀는 타지 여성들에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며 진정한 가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혼 때문에, 남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타지 남성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영향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 받고 무슬림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였다. 사요라는 심리학을 공부해서 이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이후 이혼녀들을 돕고 싶다고 하였다.

고아로 버림받아 방치될 수도 있었던 자신을 사랑으로 양육해준 고마움에 사요라는 현재 자신을 돌봐주었던 NGO에서 자원봉사로 돕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란 사요라를 보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았다. 사랑과 진리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빛나는 눈빛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MVP



#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의 나라 모로코

이이슬 / 모로코 단기 선교사

2013년 10월 6일.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 모로코를 밟았을 때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후덥지근했던 공기와 분위기,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임 선교사이신 수정 선생님을 따라 5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펼쳐졌던 광활하지만 온통 흙빛 뿐 이었던 모로코의 땅과 집들을 바라보며 어디 하나 한국과 닮은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와 있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던 그 때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라며 마음을 다 잡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의 모로코는 저에게 그렇게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땅에 살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는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이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많이 다르고 아프리카지만 여느 아프리카 국가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모로코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이며 왕정 국가입니다. 모로코를 다스렸던 선대왕과 다스리고 있는 현대 왕에 대한 좋은 평판으로 모로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특히나 모로코를 경제적으로

로 크게 발전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가들안에 들어가면 크게 걸려있는 왕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 사태 때, 모로코에도 크고 작은 시위가 있긴 했지만 왕이 돈을 풀어서 시위를 잠재웠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왕이 현재 모로코의 경제 분야에 이바지한 영향력과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왕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인해 누리는 엄청난 부와 명예들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속하여 있는 국가이지만 지리적으로 유럽과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 유럽의 문명과 유럽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한때 아프리카 국가로 EU 가입 신청국으로도 올랐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라기 보다는 유럽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로 쉽게 빈곤, 가난을 떠올리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물론 빈곤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의 원조없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만나고 함께 교제했던 서민들의 삶은 이 나라의 심한 빈부격차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직업이 있어서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력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한명이라도 더 모여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과부와 약한 자들에 대한 복지와 인권 보장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 과부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으로 구걸을 택해서 길거리에서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이 구걸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모로코는 99%가 아랍 베르베르인들이지만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러 모로코에 오기도 하며 돈을 벌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로코 내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하다보니 아프리카 흑인들의 일자리는 한계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바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들 역시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의식주가 제대로 갖추어진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숙소를 가 본적이 있는데 낡은 건물 하나를 빌려서 18명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하나, 작은 방에는 2~3명씩, 큰 방에는 10명의 사람들이 매트리스 하나만을 깔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불법 체류자로 모로코에 거하는 자들은 버려진 창고의 맨 바닥에서 한 겨울에도 반팔 하나만을 의지한 채 생활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유로 가치가 높고 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유로를 벌러 유럽으로 가는 아프리카인들이 많은데 돈을 벌러 유럽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로코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고 모로코 내에서 돈을 벌기도 합니

다. 돈을 벌러 유럽에 가기 원하는 이민 희망자들은 모로코 영토와 붙어있는 스페인 영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기 위해서는 모로코에서 설치한 높은 철조망이나 경찰의 감시를 피해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불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본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가족들과 함께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나 낯설었던 땅이 이제는 다시 가보고 싶고 그리운 땅이 된 것은 한국을 떠나서 살게 된 저의 첫 선교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와는 너무나 먼 땅이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돈을 벌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고 온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우리네 예전 그 모습과 너무나 꼭 닮아서 제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절로 감사가 되는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로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 자체, 목적 자체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 지는 것이 아니라, 코란의 가르침대로 알라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 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희락과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일것입니다.

현재 모로코에서 은밀한 움직임으로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지만 모로코내의 선교사님들과 모로코 정부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복음을 찾고 이미 찾은 모로코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이들이 소금과 빛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로코에 경제 발전을 갖고 온 왕보다도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 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를 것을 위해 오늘도 저와 모로코를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모로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소망해봅니다! MVP

# 첫 번째 케빈캠프를 마치며

전상일 선교사 / 훈련 동원 총무

2015년 1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2박 3일간 양평 SN유스호스텔에서 MVP선교회 청소년캠프인 케빈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역이라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주변의 우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만큼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열방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말씀과 주제 특강, 그리고 저녁기도회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대한 바대로 선교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캠프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전체 8%, 선교훈련을 더 받아보고 싶다고 답한 친구들이 18%,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생겼다고 답한 친구들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즉, 캠프를 통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긴 친구들이 80%가 될 정도로 첫 번째 케빈캠프는 목적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우리의 꿈은, 케빈캠프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선교 헌신자들 역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지역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케빈캠프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나길 기대하고,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기도로 무장하여 열방을 향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2회 케빈캠프를 기대해봅니다.

##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자원 / 산돌중앙교회 고3

케빈캠프는 저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속에 살다가 응답되지 않고, 시련에 지쳐 의심하게 되는 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임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열방에 초점을 두고 선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캠프 이후에도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주의 복된 역사가 전파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더 선생님들과 스태프 선생님들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3일 동안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3일이었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며 큰 은혜와 변화로 잇을 수 없는 캠프를 경험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drama’인 만큼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저희들의 역할을 찾아가고 그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당당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며 항상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케빈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김익수 / 강촌감리교회 중고등부 간사

2015년 새해가 시작되고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던 중 교회 청년부 회장님을 통해 몇 년 전 강촌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던, 전상일 전도사님께서 한국에 오셨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겨울 캠프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캠프를 가는 것 보다 그래도 아는 분, 믿을 만한 분과 함께 하는 캠프가 더 좋을 것 같아 담임목사님께 계획보고를 드리고 승인까지 받아 2015년 1월 19일 MVP KEVIN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은혜로운 캠프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마냥 비전만 강조하고 어려운 성경내용만 가지고 강해식의 캠프가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진행되어지고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들로 이뤄지는 특강 등 전혀 지루하지도, 진부하지도 않은 캠프였습니다(아이들의 의견입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캠프와 수련회를 섬겨봤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캠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VP KEVIN 캠프는 다른 여타 캠프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자 한분 한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 하지 않고 기도와 열심으로 노력하고 준비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순서 하나 하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며 저 또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캠프였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을수도 있었겠지만, 내년 내 후년에 계속되는 이 캠프에, 아이들과 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MVP KEVIN 캠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MVP



## 반응형 그리스도인

조현준 / VTT 10기 수료자

국내사역 중이신 이 갈렙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선교 팀을 재정비 하시면서 SVM 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셨고 “그래 이럴 때 물어 가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SVM 을 마쳤는데 SVM 액션 데이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는게 계기가 되어 관심갖던 중 교회 주변 태국분들과 교제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6-7개월을 꾸준히 그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최근 2015년 1월 그들중 한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형제를 통해 또 다른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좀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VTT 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인도하심이다” 『선교지 나가지 전의 준비』 라는 강의에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는가?” 를 고민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인도하심에 거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거나 내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라는 선을 그을 필요 없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가면 될 것이다.

훈련중 양화진 선교사보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미전도종족 조선” 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혔다. 귀퉁이에 있어 눈에 크게 띄이지도 않는 이 나라의 문을 여시려고 보내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온것에 감사했다.

일정을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중 본부장님께서 아직 보내져야 할 P국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 계기로 전략 발표를 위해 P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훈련 중에 차를 마시다 잠시 스쳐 지나간 ‘P국을 향한 마음’ 그 반응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반응형 웹사이트라는 트렌드가 있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같은 웹사이트라도 각각의 사이즈가 다른 기기에 따라 콘텐츠가 변형되고 재배치 되는 것이다. VTT 훈련은 마쳤지만 반응은 시작되었다. 반응형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속도는 느리겠지만 단혀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용되길 소망한다. 전방 개척과 미전도 종족이라는 창 앞에서 하나하나 내 삶을 재배치하고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준비시키실 것을 기대한다.

# 기쁜 마음으로 완주할 길

차윤주 / VTT 10기 수료자

입덧을 막 끝내고 참여하게 된 훈련이라 걱정도 되고 SVM 때보다는 덜한 열정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인 민족을 품고 현장 계획을 꿈꾸는 다른 훈련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2주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나의 선교 후보자로서의 모습을 점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준비하는지, 무엇보다 스스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현재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선교동원 사역을 하는 남편과 함께 길을 걸으며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강의를 통해 건강한 선교사의 삶과 선교사역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벤처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과연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이 시대에 남은 미전도종족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욱 밝은 비전을 보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선교사님들의 현장 이야기를 통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예배하고 묵묵히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자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예배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고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180도 변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선교 훈련을 받은 뒤,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비전은 그 전에 비해 분명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과 같이, 나의 선교사역이 개인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동참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완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체력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VTT 10기를 마치며

김단비 / 훈련 동원 간사

아직도 이 세상에는 6천개 이상의 미전도종족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모험, 개척할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VTT(Venture Team Training)는 RM, CM, BM(3M)의 유기적인 팀사역을 통해 전방개척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17일까지 총 6명의 훈련생이 10박12일 합숙훈련을 하였습니다. Partnership(연합과 팀사역)은 소통리더쉽 교육, 선교사의 영성과 자기관리, 현지에서의 관계 및 팀사역, 전도실습, 팀모임 등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Mission & Venture(벤처선교 및 전략)는 변화하는 시대에서의 선교, 이슬람의 이해와 선교전략, 선교지 연구, 타문화교회개척운동, 선교문화 인류학, 전략발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만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최우선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10기 수료생)

“전방개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단체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선교사님의 개척사역을 제 달란트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10기 수료생)

수료생들의 간증만큼 많은 것을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MVP



# MVP선교회의 새소식입니다

##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11월 20일에는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주관으로 말씀(한천희 선교사), 벤사원 사역소개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본부 사역자’ 주관으로 말씀(이갈렙 선교사),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많은 멤버쉽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방콘서트가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관을 하지 않고 선교 동원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월 29일에는 말씀(이수진 목사),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타지키스탄)팀을 파송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말씀(김홍빈 선교사), ‘고넬료의 초청(타지키스탄)’ 여행 보고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 2. 아미프 선교사 초청세미나

2015년 2월 15일(일) “타 문화 속 교회개혁”이라는 주제로 아미프 선교사 초청세미나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 3. 리사원 리서치심화훈련 1기 수료

2014년 10월 17일 ~ 2015년 3월 6일까지 리서치심화훈련을 on the job training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6개월간 전문적인 리서치 훈련을 받고자하는 선교회 내 선교사들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생들은 10개의 전방개척권역의 협력연구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 4. SVM 30기 개강

2015년 상반기 SVM 훈련이 3월13일 개강하여 5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30기 SVM 훈련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VTT 10기 수료

2015년 1월 5일 ~ 1월 17일까지(2주간) 장·단기선교사 합숙훈련인 VTT가 은혜 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훈련생들의 전략발표 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자: 조영승, 김대범, 조현준, 김선민, 임하울, 차윤주 (6명)

## 6. 케빈캠프

2015년 1월 19일 ~ 21일(2박 3일), 양평 SN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라마”라는 주제로 열방을 향한 다음 세대로 일어나길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속관리로 동원과 훈련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단기선교사 디브리핑

처음으로 단기 선교사를 대상으로 본부가 주관하여 디브리핑을 가졌습니다. 2월 25일에 이이슬 자매의 단기 선교사 디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 8. 고넬료의 초청

고넬료의 초청으로 2015년 2월 2일~2월 14일 이갈렙, 최현미, 김선민, 김소윤(4명)이 타지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인 가정방문 및 선교사님들과의 교제, 리서치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갈렙 총무님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며 현지의 좋은 정보들을 얻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 9. 본부장 인도차이나 방문

현장상황 파악 및 현장 선교사 격려를 위해 인도차이나를 방문하셨습니다(1월 20일~1월 31일). 무엇보다 후임 본부장과 의 만남으로 다음 본부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0. 금식기도회

10월(2일), 11월(5일) 12월(4일), 2월(5일), 3월(5일)에 금식기도회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회는 4월(2일) 5월(7일), 6월(4일), 7월(2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금식기도회를 합니다. 금식기도회는 수양관 등 외부로 나가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에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 11. 중보기도 팀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기중보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월 2째 주와 4째 주 목요일 오전 MVP본부에서 진행되며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랍니다(02-703-1215).

# 글로벌교회개척학교

(GPS, Glocal church Plant School)

글로벌교회개척학교는 국내와 해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개척의 이론과 실재를 10주간에 걸쳐 강의와 책 나눔을 함께 하고, 국내와 해외 아웃리치를 통하여 교회개척을 시도하고 선교적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회개척 배가운동(Churching Planting Movement, CPM)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글로벌교회개척학교의 특징

- ◀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세움
  - ◀ 국내/해외 목회자와 교회개척 선교사의 강의와 실제적인 멘토링
  - ◀ 국내외의 다양한 Activity를 통한 경험(현장 경험)
  - ◀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MVP선교회 산하 캠퍼스선교사역연구원)와 긴밀한 네트워크
  - ◀ 학교 진행 중에 멘토와 함께 하는 교회개척과 교회 창립 도움
  - ◀ 학교 수료 후 국내나 해외로 글로벌비전교회 교회개척선교사 파송 가능
- 일 정 : 3월 9일(월) 개강~6월 29일(월) 종강  
저녁 6:30-10:00 (격주로 진행, 5/4-5일 1박)  
\*선교적교회개척실습 : 해외(7월 2주간) 또는 국내 교회개척 중 선택
  - 진 행 : 예배와 간증/ 주제 강의/ 책 발제/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는 소그룹 나눔/ 기도회
  - 코디네이터(섬김이) (각 주제 강의는 내·외부강사가 전함)
    - 한수아 선교사 (MVP선교회 본부장, 선교사, 꿈이 있는 교회)
    - 김홍빈 목사 (캠퍼스 선교&교회개척사역개발원장, 글로벌비전교회 대표목사)
  - 장 소 : 흥대 글로벌비전교회(합정역 7번 출구, 양화진 입구)
  - 참가비 : 총 12만원(일시 10만원, 매달 분납 3만원/4개월)
  - 모집 인원 : 20명
  - 문 의 : 김승관 전도사 (010-8986-2304) / MVP선교회(02-703-1215)



# 2015 벤처선교훈련학교

# SVM

**School of Venture Mission**  
 21세기 선교상황은 우리에게 개척, 도전,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벤처선교가 필요합니다!

## 일시

**30기 SVM** 3월13일~ 5월 16일  
 (OT캠프 3월13일~14일 / 선교캠프 4월 24일~25일)  
 토요일 AM10:00~PM2:30  
**31기 SVM** 9월11일~11월14일  
 (OT캠프 9월11일~12일 / 선교캠프 10월16일~17일)  
 토요일 AM10:00~PM2:30

## 왜 벤처선교인가?

- 이론과 현장의 만남
- 현장 선교사들의 실제적 강의
- 개인의 은사를 통해 함께하는 팀 선교
- 현 시대의 선교동향에 맞는 전략적 선교



**장소** MVP선교회 서울본부 벤처홀(6호선 망원역 2번 출구, 도보로 3분)  
**훈련비** 25만원(개강 2주전 선등록 시 23만원) \*국민은행 762301-04-191966 예금주: 서울SVM  
**문의** MVP 선교회 / TEL : 02-703-1215, E-mail : svmkorea@gmail.com, www.mvp.or.kr  
**강의** OT캠프 / 세계선교역사 / 미전도종족선교 / 리서치선교(RM) / 캠퍼스&교회개척선교(CM) /  
 비즈니스선교(BM) / 선교현장과 홍보기도 / 선교캠프 / ACTION DAY(일일 선교문화체험) / 선교동원  
**강사** 신동우(MVP선교회 이사장), 조명순(한국형 선교개발원장), 한수아(MVP선교회 본부장),  
 구영삼(벤처사역개발원장), 김인애(리서치사역개발원장), 김흥빈(캠퍼스사역개발원장) 등.

## 고벨료의 초청(여름, 겨울 선교여행) MVP선교회

10개 전방개척권역으로 선교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인도차이나(미얀마, 베트남) / 중국 무슬림(중국 신장)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페르시아1(이란, 터키)  
 페르시아2(타지키스탄, 파키스탄) / 초승달지역(요르단, 레바논)  
 북아프리카(이집트, 모로코) / 아라비아반도(오만)



MVP 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모험, 도전, 개척정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